

# 하이쿠를 통해 본 일본인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 「歲時記」에 나타난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

李 炫 瑛\*\*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이란?
3. 근세시대의 「歲時記」와 연중행사
4. 「歲時記」별 기고(季語)의 분류
5. 『하이카이시치부슈』(俳諧七部集)에 나타난 연중행사
6.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어느 민족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에는 그 나름의 기원과 정취가 있다.

일본에도 예로부터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겨난 전통적인 다양한 풍속이 있고, 그 풍속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일본의 관습과 풍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전통적인 풍속을 대표하는 것이 연중행사일 것이다.

연중행사란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같은 양식의 습관적인 행사가 반복되는 전승적인 행사로 그것은 가정이나 촌락, 그리고 민족 등 집단마다의 관습이고 공통적으로 영위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부분 각 지역공동사회마다 공통적인 성격을 띠고 전승되지만, 정치적 사회적 변동과 변화에 따라서 변용되어 간다.

따라서 세시풍속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살아온 민중의 모습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연중행사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간단히 검토하고, 특히 근세시대에 출판된 다양한 세시기(歲時記)와 기요세(季寄)를 통해서 각 문헌에 수록된 연중행사와 관련된 기고(季語)를 분류해, 근세초기부터 중기에 걸친 시기의 연중행사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시기(歲時記)란, 근세 운문문학의 한 장르인 하이카이(俳諧)의 작법서(作法書)로, 그 안에는 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KRF-2002-037-A00101)

\*\* 건국대학교 조교수 일본근세문학전공

절을 나타내는 많은 기고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러한 기고 중에는 연중행사를 비롯한 세시풍속에 관한 어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수록된 어휘를 통해서 근세를 살았던 일본인들의 일상생활과 세시풍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歲時記」에 게재되어 있는 풍속들이 일본인의 실생활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이들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기록과 당시의 하이카이 작품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 각 행사와 풍속의 변천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세초기에 출판된 많은 하이카이 관련 문헌을 통해서 당시의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에 관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여 근세 일본인의 생활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이란?

먼저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의 의미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중행사란 매년 같은 시기에 행해지는 의례로, 세시의례라고도 불린다. 집집마다 행해지는 것은 흔히 가례(家例)라고 하여, 공동체와 사회집단마다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전승적인 관습과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중행사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세시풍속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특별한 생활행위, 또는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즉, 정해진 시기에 행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절별로 구분하거나 월별로 세분화하여, 그 속의 특별한 날을 절일(節日)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세시풍속을 「月令」 또는 「時令」이라고도 했던 것이다. 특별한 생활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의례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는 집단·생활공동체이고, 그것은 좁은 의미로는 가정과 마을, 넓은 의미로는 사회와 국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세시풍속을 연중행사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발생한 발렌타인데이, 이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연중행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행사를 근대적 의미의 세시풍속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세시풍속의 의미를 예로부터 전해진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의례적인 관습으로 보는 관점에서, 근대이후 오늘날의 연중행사의 경우에는 종래의 세시풍속과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문헌에 등장하는 연중행사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최초의 기록은 58대 천황인 고코천황(光孝天皇, 884-887) 때의 기록으로 국정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장관 후지와라 모토쓰네(太政大臣, 藤原基経)가 궁정에 헌상한 『年中行事御障子文』(885)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중 항례의 공무가 28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고, 9개 항목의 월중행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9월과 10월의 행사 사이에는 신을 모시는 제사(神事)·어복(御服)·어화(御晝)·폐조(廢朝)·여러 가지 금기(雜穢) 등의 5개 항목을 추가하여 궁중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정월에는 48개조, 정월 초하루만은 14개조의 강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문서는 궁정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의 표본이라 생각되지만, 이후 정치적 변동과 병행해서 많은 변용을 보이게 된다.

법제화된 궁정연중행사는 『養老律令』<sup>1)</sup>을 기초로 해서 헤이안시대의 『弘仁儀式』(819년 이전)<sup>2)</sup>.

1) 조정의 의식순서를 편찬한 三代儀式의 하나로, 弘仁十年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2) 平安時代前期에 朝廷의 儀式순서를 編纂한 문헌. 通説로는, 三代儀式의 하나로, 貞觀十四年十二月 이후에 만

『貞觀儀式』(872년이후)<sup>3)</sup>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황족과 관인들은 그러한 의식의 내용을 숙지하여, 궁중에 출사할 때나 생활할 때, 그리고 궁중을 나갈 때도 항상 염두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延喜式』(927년 완성)는 『弘仁儀式』과 『貞觀儀式』을 병합·개정해서 만든 것으로 궁정연중행사·의식을 비롯한 규칙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의 공가연중행사가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헤이안시대 중기이후, 의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연중행사는 조정의 규칙(有職故實)으로써 전개되어 간다. 이처럼 공가(公家)연중행사는, 기존의 농업생산중심의 연중행사를 모태로, 중국 등의 외래의 연중행사를 섭취해서 조성되긴 했지만, 그 성격은 정치성이 짙은 정사연중행사(政事年中行事)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헤이안시대의 연중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正月：四方拜, 御藥を供す, 朝賀, 小朝拜, 元日節會, 朝勤行幸, 二宮大饗, 臨時客, 視告朔, 敍位, 七日節會, 女敍位, 女王祿, 縣召除目, 御粥, 御薪, 踏歌節會, 射礼, 賭弓, 内宴, 卯杖, 若菜, 子日遊外記政始
  - 二月：祈年祭, 釋奠, 春日祭, 列見, 位祿定
  - 三月：曲水宴, 草餅, 石清水臨時祭
  - 四月：更衣, 孟夏旬, 擬階奏, 灌仏, 駒牽, 賀茂祭
  - 五月：菖蒲を獻す, 端午節會, 馬場騎射, 賑給
  - 六月：忌火の御飯, 神今食, 節折, 施米
  - 七月：乞巧奠, 孟蘭盆, 相撲
  - 八月：釋奠, 定考, 石清水放生會, 仲秋觀月, 駒牽
  - 九月：不堪佃田奏, 重陽宴, 例幣
  - 十月：更衣, 玄猪, 射場始
  - 十一月：五節, 新嘗祭, 豊明節會
  - 十二月：御仏名, 追儺, 荷前, 内侍所御神樂
- <※이상은 『有職故實』<sup>4)</sup>에 의함>

12세기 후반, 연중행사 두루마리 그림(年中行事繪卷)<sup>5)</sup>이 고시라카와 상황(後白河上皇)에 의해 제작되는데, 그속에는 조정과 귀족들뿐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모습도 그려져 있어, 내용면에서는 이전의 절일 날 연회(節會)를 그린 두루마리 그림(繪卷)이라고 하는 성격에서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생활적인 두루마리 그림으로 전개해 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원래 연중행사는 생활의 사이클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무에 종사하는 귀족들에게는 그러한 공적인 행사를 빈틈없이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병풍과 두루마리 그림이 중요했을 뿐 아니라, 당시 귀족들의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노래(和歌)를 읊기 위한 소재로써도 중요했기에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세에 들어와서도 궁정에서 궁정공무(宮廷公事)는 행해졌지만, 권력의 중심이 막부로 옮겨가게

들어져서, 現在『儀式』이라고 하는 書名으로 전해지는 十卷의 서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3) 律令格에 대한 施行細則을 集大成한 古代法典의 하나이다. 延喜五年八月, 醍醐天皇의 명령에 의해 藤原時平를 長으로 한 十二名의 編集委員에 의해서 編纂을 개시하고, 完成해서 현상한 것은 延長五年十二月이다.

4) 『有職故實』(河鱈實英, 塙書房, 1998) pp.152-169.

5) 『年中行事繪卷』는 平安時代後期の 恒例·臨時的 公事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行事·祭礼·法會의 盛儀를 두루마리그림(繪卷)으로 表現한 繪卷物. 『古今著聞集』書目에는 「後白河院御時、年中行事를 그림으로 그려서 감상하시던 것을 松殿에 바친 것이다」라고 전해지며, 鑑賞用이라기 보다는 規범을 後世에 전하려고 하는 記錄用 作品이라 할 수 있다.

되어 다양한 무가(武家)의 풍속이 공식적인 행사로 정형화되어 간다. 공가사회(公家社會)에서도 무가의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세의 오우닌의 난(応仁の亂, 1467-77)에 의한 수도 교토(京都)의 퇴폐화는 궁중의 많은 절일 행사를 전멸상태에 빠지게 하여 남겨진 행사는 민간으로부터 유입된 몇몇의 행사뿐이었다. 그러한 명맥만을 유지하게 된 행사는 대부분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행사이었기에 민중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었고 막대한 경비를 요하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행사들이었다.

근세시대에는, 토쿠가와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한 에도막부(江戸幕府)의 개막이후 공식적인 연중행사는 한층 민중적인 색채가 강해진다. 소위 에도시대는 오랜 시간에 걸친 태평성대로 민중의 생활이 안정되어, 연중행사는 생활 속에 정착되어 가고 지역적인 변화가 한층 고조되어, 공전의 다양화 바람이 불게 된다. 거기에는 하이카이(俳諧)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보급도 큰 촉진제가 되었다. 연중행사가 다양해지는 것은 태평스러운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한층 복잡해져 가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그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은, 문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전파되어 나갔다는데 특징이 있다.

근세초기부터 하이카이가 세간에 널리 보급되어 이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고, 하이카이와 관계된 서적도 다수 출판된다. 즉, 하이카이 작법서의 하나인 『하이카이 쇼가쿠쇼』(俳諧初學抄, 齋藤徳元編, 1643)에 이르러서는 「사계절의 어휘」(四季の詞)라고 하는 항목 속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많은 연중행사를 수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하이카이는 근세시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행했기 때문에, 근세민중들은 年中行事에 관한 흥미를 하이카이를 통해서 널리 공유했던 것이다.

이상,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의 의미와 그 흐름에 관하여 간단히 개관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근세 세시기와 연중행사에 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3. 근세시대의 「歲時記」와 연중행사

「歲時記」란, 기다이(季題)·기고(季語)를 사계절로 분류·정리하여 해설과 예구(例句)를 붙인 서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기요세(季寄)를 포함한다<sup>6)</sup>. 세시기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중국의 『四民月令』 『荊楚歲時記』 등의 행사력(行事曆)·생활력(生活曆)에 관한 서적을 가리키는데,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日本歲時記』를 비롯한 『東都歲事記』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하이카이 작법서(作法書)로서 근세시대에 출판된 「歲時記」종류를 텍스트로 한다.

시가의 제재에 대한 계절의 분류의식은, 상대시대의 『만엽집』(万葉集 卷八·卷十)의 편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와 『고킨와카로쿠조』(古今和歌六帖)에서도 하나의 정형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초봄부터 저물어 가는 겨울의 끝자락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가는 자연의 미묘한 추이에 따라서 노래(和歌)를 배열하려고 한 『고킨와카슈』의 부다테(部立)는, 대대로 이어지는 칙선집의 규범으로 답습되고, 나아가 칙선집 이외의 가집·우타이와세(歌合)로부터 채수룩한 와카를 사계절의 부 18권, 잡부(雜部) 10권으로 배열한 『후보쿠와카쇼』(夫木和歌抄)의 부다테는, 와카의 세계에서 시가의 소재에 대한 분류의식의 총색인이라 볼 수 있다.

중세에 들어와 발생한 렌가(連歌)의 세계에서는, 최초의 렌가론서라고 할 수 있는 니조 요시모토(二條良基)의 『렌리히쇼』(連理秘抄, 1349)가 12개월로 분류한 약 40종의 경물을 수록하고 있다.

6) 『俳文學大辭典』(角川書店, 1995) p.314에 의함

이후, 요시모토의 『렌가신시키』(連歌新式), 『지렌쇼』(知連抄, 본토(梵灯)의 『조탄쇼』(長短抄, 1390), 소제이(宗砌)의 『쇼신큐에이슈』(初心求詠集, 1429이전), 가네라(兼良)의 『렌쥬갓베키슈』(連珠合璧集, 1476), 쇼하쿠(肖柏)의 『렌가신시키 도쓰이카 나라비니 이마요토우』(連歌新式同追加並に今樣等), 조하(紹巴)의 『시라가슈』(白髮集) 등을 더해, 『렌가시호쇼』(連歌至宝抄, 紹巴, 1586)에 이르러서는 약 300여 개의 사계절의 어휘가 수록되게 된다

근세에 들어오면, 하이카이 문학 최고의 기요세(季寄)인 『하나히구사』(はなひ草, 1636)가 편찬되는데, 여기에 수록된 사계절의 기고는 위의 『렌가시호쇼』에 하이카이의 기고를 증보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히구사』이하 150여권의 하이카이세시기의 배후에는, 이러한 약 천년에 걸친 와카와 렌가 이래의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하나히구사』에 수록된 기고는 렌가론집에 실려있는 기다이(季題)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훗날의 문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반해 『게후키구사』(毛吹草, 1645)의 경우에는 『조야마이』(増山井, 1667)에 영향을 주고, 이어지는 많은 세시기에 영향을 끼친다. 거기에는 「連歌四季之詞」와 「俳諧四季之詞」가 따로 수록되어 있어, 렌가에 대항하는 하이카이만의 독자의 기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게후키구사』에 수록된 기고 중에서 연중행사와 관계 있는 어휘만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별	連歌之詞	俳諧之詞
一	四方拝・星を唱・氷様・屠蘇・藥子・若水・つゝみ井開・筆試・腹赤贄・曆開・國栖笛・子日・小松引・若菜・菜摘・蓴菜摘・芹・白馬・卯杖・縣召・霰走・かざしの綿・御薪・曙弓・梅か枝謠	朝賀・小朝賀・院拝礼・毘沙門功德經・三物連歌・裏白連歌・七日のこなかへ・菜摘川神事・御齋會・常陸帶齋・えびす祭・初寅參・綱引・ふくわかし・踏歌節會・左義長・平岡御粥・師子頭神事・松の内・厄神參・御忌・廿日団子・具足餅・鳥追・千壽万歳・水かけいはひ・けさう文・ほうびき・節振舞・呂の調・鶯の樂・鶯笛・年玉・年徳・え方・若えびす・年男・書初・謠初・松ばやし・弓始・きそ始・藏開・門神棚・鏡餅・雜煮・大ぶく・にしざかな・數の子・伊勢えび祝・掛綱・ほうらいの組付・ほだはら・かち栗・串柿・代々柚柑・柑子橘のみ・野老いはふ・芋頭いはふ・ひらきまめ・ふとばし・かざりわら・しだ・ゆづるは・はぜ・山椒の皮
二	祈念祭・春日祭・大原祭・仏別	二月堂の行・薪の能・吉野餅くばり・初の彼岸・同二日灸・同出替・初午・水間寺初午詣・道明寺祭・遺教經・涅槃像・石塔・淺間祭・時宗踊念仏
三	須磨の御祓・巳日祓・南祭・鎮花祭・杯ながし・小弓引	曲水宴・桃の酒・蓬餅・鷄合・住吉塩干・土佐海・石山祭・粟津祭・一乘寺祭・水尾祭・やすらひはな・吉野會式・天台礼拝講・比良祭・壬生念仏・嵯峨大念仏・淺草祭・御身拭・御影供・高雄仁和寺の女詣・順の岑入・いろりふさぐ

四	更衣·青簾·扇給·神祭·大神祭·稻荷·松尾·平野祭·梅宮·廣瀨·龍田·日吉祭·賀茂·同御形·吉田祭·榊取·灌仏	裕·風爐の茶·茶を詰·筑麻祭·水屋の能·ひの頭·山崎祭·戒壇堂開帳·仏の生湯·山科祭·八瀬·多賀·堅田祭·大津祭·管宮·八幡·山王·千団子·葵祭·關白賀茂詣·嵯峨祭·地主祭·向明神·当麻法事·土塔會·日光·花供·煮酒·百日の行·蚊帳釣初
五	獻菖蒲·あやめ茨·藥草摘·藥玉·競馬·引折の日	競馬足揃·松本祭·百草摘·藥日·菖蒲刀·菖蒲酒·菖蒲酢·同湯·粽·端午の祝·藤森祭·關明神·宇治·今宮·室明神·兩社祭·住吉御田植·山田御田扇·おばらざし
六	氷室·祇園會·川社·御祓	水餅いはふ·祇園會·津島祭·熱田·いつくしま·竹生島·江戸山王·嘉祥食·伊勢祭礼·博多·富士詣·座頭涼·鞍馬竹切·志渡寺祭·愛宕の千日詣·橋立祭·御手洗·天滿天神御祓·賀茂水無月能·住吉御祓·土用干
七	七夕·願の糸·銀河·庭の立琴·律の調·玉祭·相撲·みさ山祭	攝待·揚灯籠·北野御手水·七日の花揃·岑入·文珠會·清水寺千日詣·あんごの頭·三井寺の女詣·盂蘭盆·内裏御灯籠·きりこ·施我鬼·聖靈祭·生見玉·送火·花火·踊·盆のつと入
八	北野祭·生放·八幡祭·司召·駒迎	たのむの祝·水碓祭·堺天神祭·白髭開帳·敦賀祭·志賀八幡·豊浦祭·宇佐宮·箱崎·芋名月·御靈祭·桑名
九	御灯·暖酒·住吉市·野の宮別·菊のきせ綿	舍利會·醍醐祭·御香宮·鞍馬·貴布称·生玉·下鳥羽·四位宮祭·伊勢奉幣·白河祭·小倉·岩倉·粟田口·一宮·神田明神·岡崎·山口祭·吳服·半女祭·鳥羽竹田·座間·天滿鎬流女·太秦·淀·木幡·師子谷·逆髮祭·北山·鳴瀧·津村·豆名月·今年米
十	更衣·弓場始·殘菊宴	神送·爐開·茶口切·亥子いはひ·達磨忌·十夜法事·興福寺法花會·維摩會·金比羅祭·日蓮忌·東福寺開山忌·大社神事·惠美酒講·神むかへ
十一	平野祭·春日祭·梅宮祭·松尾·大原野·吉田·北祭·豊の明·神樂·榊葉謠·求子·東遊·庭火·小忌衣·日かげの糸	曆奏·冬至·鎮魂祭·子祭·御火燒·山の神祭·韋がふ祭·空也忌·五節·一向宗開山忌·大師講·新嘗祭·三島西市·宇嘉祭·御祭
十二	荷前使·仏の御名·衣くぼり·みぐしあげ·年木こる·年を守·節折·儼名	弟子朔日·溫槽粥·大徳寺開山忌·寒垢離·曉の鉢扣·和布菟神事·齋宮繪馬·年籠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게후키구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고의 대부분이 연중행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연중행사 관련 어휘들이 세시기에 기록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 하이카이를 창작할 때 읊어지지 않은 기고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기고로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널리 읊어진 기고도 있었을 것이므로, 반드시 실제 작품과 대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근세 초기 연중행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요세(季寄)만의 단행본으로는, 기긴(季吟)이 편찬한 『야마노이』(山之井, 1648)가 가장 선행한다. 그후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는, 기긴이 증보한 『조야마이』(増山井, 1667)를 들 수 있는데, 이후 『하이카이반쇼와라하』(俳諧番匠草, 1689), 『이토구즈』(糸屑, 1693), 『하이카이오다마키고목쿠』(俳諧をだまき綱目, 1703) 등은 기긴의 『조야마이』의 설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이카이스조쿠시』(俳諧通俗志, 1717) 이하의 기요세는 시제에 대한 현실적인 세태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 분명 근세 후기에 들어서면, 실질적인 감각과 고증이라고 하는 양측면에서 기고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와쿠카세와』(わくかせわ, 1753), 『이토기리바』(糸切齒, 1762), 『야키오호네』(やきおほね, 1763)로 이어지는 논쟁이 지방의 연중행사 재록을 둘러싼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그러한 움직임을 시사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제국연중행사』(諸國年中行事, 1752)이하의 해설서에 의한 영향이지만, 그 배후에는 문운동점(文運東遷)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토와 오사카 중심으로 편찬되었던 세시기·기요세의 제 행사에 에도(현재의 동경)을 비롯한 각 지방의 행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불가피한 당면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 오늘날의 하이카이 세시기에 수록된 기고를 조사 분류해, 그 속에 포함된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의 기고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텍스트로서는 근세시대에 출판된 다양한 세시기를 총망라한 角川版『図説俳句大歳時記』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季題分類	新年	春	夏	秋	冬	統計
時候	31	63	59	83	81	317
天文	14	59	88	79	67	307
地理	5	38	38	30	29	140
人事	(406)	(312)	(559)	(319)	(479)	(2075)
①宮廷行事	44	7	26	15	27	119
②國家·武家行事	13	9	10	8	1	41
③民間行事	200	49	72	74	93	488
④기타	149	247	451	222	358	1427
宗教	(201)	(156)	(186)	(220)	(147)	(910)
①宮廷	8	5	6	2	9	30
②神道	106	40	111	101	70	428
③仏教	61	62	25	50	31	229
④기독교	1	16	9	10	8	44
⑤忌日	23	31	33	54	29	170
⑥特殊行事	0	2	2	3	0	7
動物	9	115	276	144	108	692
植物	22	340	553	381	107	1403
統計	668	1123	1759	1256	1018	5844

궁정행사, 국가·무가행사, 민간행사, 종교행사가 전체 기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인사와 관련된 기고에도 연중행사와 관계 있는 어휘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넓히면 50%에 가깝다. 하지만, 하이카이 작품에서는 인사의 기고보다는 자연과 사계를 읊은 작품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연중행사와 세시풍속 관련 기고들이 실제 작품에 이용되는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고의 빈도보다는 그 쓰임새일 것이다. 이에 대해 오가타(尾形)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기고의 고증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분명히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시어의 계통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혹은 각 시대의 작가들이 그것을 시어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고자 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季語の考証の果たすべき役割は、それが指している實體を明らかにすることよりも、それがどのような経路を辿って詩語の系列の中へ組み入れられていったか、もしくは各時代の作家たちがそれを詩語としてどう受け取り、そこにいかなるイメージを思い描いた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主眼がある。)<sup>7)</sup>

위의 지적은, 기고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연중행사 관련 기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 논문

7) 『図説俳句大歳時記』 「新年」(角川書店, 1974) p.376.

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가타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루이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히구사』를 비롯해 『하이카이쇼가쿠쇼』·『게후키구사』·『조야마이』에 수록된 기고를 검토하기로 한다.

#### 4. 「歲時記」별, 기고(季語)의 분류

위의 <표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기고는 그 성격상, 時候·天文·地理·人事·宗教·動物·植物로 분류하고 있다.

年中行事나 歲時風俗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항목은 人事와 宗教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자료도 「歲時記」의 기고를 위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한 후, 인사와 종교의 기고만을 모은 것이다.

##### ① 『하나히구사』(立圃編, 1636)

	春(1-3)	夏(4-6)	秋(7-9)	冬(10-11)
季語數(人事와 宗教)	57	53	30	42

##### ② 『하이카이쇼가쿠쇼』(徳元著, 1641)

	春(1-3)	夏(4-6)	秋(7-9)	冬(10-12)
季語數(人事와 宗教)	60	65	46	60

##### ③ 『게후키구사』(重頼編, 1645)

	春(1-3)	夏(4-6)	秋(7-9)	冬(10-12)
季語數(人事와 宗教)	140	97	81	103

##### ④ 『조야마이』(季吟著, 1667)

	春(1-3)	夏(4-6)	秋(7-9)	冬(10-12)
季語數(人事와 宗教)	249	165	119	156

①부터 ④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에 관한 기고가 가장 많은 계절은 봄이다. 그 다음으로 여름, 겨울, 가을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봄에 많은 연중행사의 기고가 수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의 세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1월부터 3월까지의 봄에는 신년(新年), 즉 정월의 행사가 가장 다양하고 많다. <표1>의 『게후키구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連歌四季之詞」뿐 아니라, 하이카이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俳諧四季之詞」에서도 정월의 행사는 다른 어느 월보다도 그 숫자가 월등하다. 다음으로 여름에 연중행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각 지방에서



「제·祭」라고 하는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대부분 4-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1>에서 「神祭·大神祭·平野祭·日吉祭」 등에서 알 수 있듯이 「~祭」라고 하는 행사는 4월에서 6월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히구사』에서부터 『조야마이』로 내려갈수록 公家の 연중행사보다 민간의 연중행사와 관련된 기고가 빈출해, 근세시대에 들어와 다양해지는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5. 『하이카이시치부슈』(俳諧七部集)에 나타난 연중행사

다음으로, 하이카이 작품집에 나타난 연중행사 관련 기고에 관해서 조사해보기로 하자. 이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 1684년부터 1698년 동안에 편찬된 『하이카이시치부슈』(俳諧七部集)<sup>8)</sup>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하이카이시치부슈』 중에는 7개의 하이카이 선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라노』(あら野)와 『쇼쿠사루미노』(續猿蓑)의 두개의 선집에는 각각 연중행사와 관계 깊은 기고를 모은 「석교부」(釋教部)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게다가, 『아라노』의 경우에는 「荒野集卷之六」 「잡부」(雜部)에 「年中行事内十二句」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年中行事内十二句」의 작품들이다.

供屠蘇白散  
 いはけなやとそなめ初る人次第  
 春日際  
 としごとに鳥居の藤のつぼみ哉  
 石清水臨時祭  
 杳音もしづかにかざすさくら哉  
 灌仏  
 けふの日やついでに洗ふ仏達  
 端午  
 おも瘦て葵付たる髪薄し  
 施米  
 うち明てほどこす米ぞ虫臭き  
 乞巧奠  
 わか菜より七夕草ぞ覚えよき  
 駒迎  
 爪髪も旅のすがたやこまむかへ  
 撰虫  
 草の葉や足のおれたるきりぎりす  
 十月更衣  
 玉しきの衣かへよとかへり花

8) 芭蕉의 一代撰集中, 重要な 것 七部 一二冊 즉 『冬の日』·『はるの日』·『あら野』·『ひさご』·『猿蓑』·『すみだら』·『續猿蓑』를 모은 것으로, 예로부터 蕉風の 經典으로 여겨져 왔다. (『俳諧大辭典』 明治書院 1955)

五節  
 舞姫に幾たび指を折にけり  
 追儼  
 おはれてや脇にはづるゝ鬼の面 (『芭蕉七部集』<sup>9)</sup>)

우선, 「供屠蘇白散」은 연말에 궁중(清涼殿)에서 도소주·약주屠蘇酒·白散를 마시며 무병장수를 비는 행사이고, 「春日祭」는 2월 상순의 申日에 행해지는 나라의 가스가 신사(奈良春日神社)의 제례를 말한다. 그리고, 「石清水臨時祭」라고 하는 것은 3월 상순의 午日에 행해지는 이와시미즈 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제례로, 각각의 작품은 봄날에 궁궐과 지방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를 제재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灌仏」「端午」「施米」는 각각 4월 8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궁중에서 행해지는 단오 행사, 그리고 6월 교토에서 빈곤한 승려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는 여름의 연중행사를 읊고 있다.

다음으로 가을의 연중행사로서는 「乞巧奠」「駒迎」「撰虫」 등이 제재가 되고 있다. 「乞巧奠」은 7월 7일 밤, 제물을 바치고 견우성과 직녀성을 모시는 행사이고, 「駒迎」은 8월에 궁중에 말을 헌상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들을 관인들이 오우미(近江)의 아우자카 관문(逢坂關)까지 맞이하러 가는 행사이다. 바로 이 「駒迎」의 행사는 헤이안말기에 쇠퇴하여<sup>10)</sup>, 근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단절된 행사였다. 그리고, 「撰虫」이라고 하는 행사는 귀족들이 사가들관(嵯峨野) 등에 나가서 벌레 소리 겨루기(虫合)를 하기 위한 곤충들을 잡아서 궁중에 헌상하는 행사로 『야마노이』(山之井)에 의하면 「요즘에도 가모의 종자들이 여기 저기서 잡아와서는 헌상하고 있다」(今の世も賀茂侍など、ここかしこより求めて奉り侍る)<sup>11)</sup>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겨울의 연중행사인 「更衣」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궁중에서 겨울 솜옷으로 갈아입는 행사이고, 「五節」은 11월 중순의 丑日부터 행해지는 5명의 무희(舞姫)들에 의한 행사이다. 하지만 이 행사는 중세의 전란으로 중단되어, 근세 후기(宝歴三年, 1753)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작품은 직접적인 관람이나 체험에 의한 작품이라기 보다는 기고의 주제에 맞춰서 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追儼」라고 하는 행사는 궁중의 연중행사의 하나로, 12월의 마지막날 밤 악귀를 쫓고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다. 이 행사는 중국에서 전해진 행사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사이다. 실제로 근세시대에도 행해졌던 모습이 작품을 통해서 생생히 전해지고 있다.

이들 12작품의 연중행사에는, 당시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행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쇠퇴되어 중단된 행사도 읊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하이카이 작품집에 부타테(部立)로써 연중행사라는 항목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근세인의 일상에 연중행사가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은, 『하이카이시치부슈』에 수록된 종교관계의 연중행사를 읊은 작품들을 살펴보자. 우선, 히간에(彼岸會)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9) 新日本古典文學大系『芭蕉七部集』、岩波書店、1990  
 10) 『建武年中行事』에 의하면, 「近頃は絶えたり。甲斐の御馬ぞ、この一兩年おこし出でられたる。望月ばかりは、今まで絶えず」と 한다. (『日本年中行事辭典』、鈴木榮三編、角川書店、1977)  
 11) 「山之井」p.446 (『貞門俳諧集』、日本俳書大系刊行會、1926)

- ① 彼岸まへさむさも一夜二夜かな 路通 (『猿蓑』)
- ② 門建直す町の相談 孤屋  
彼岸過一重の花の咲立て 野坡 (『炭俵』)

춘분과 추분을 사이에 두고 전후 7일간을 히간(彼岸)이라 하는데, 히간에는 바로 그 7일간의 불교 행사를 말한다. 헤이안시대 초기부터 조정에서 행해졌으며, 근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연중행사로써 널리 행해졌다. ①②의 작품에서는 히간이라고 하는 연중행사가 히간이라고 하는 절기의 변화로써 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네한에(涅槃會)에 관해서 살펴보자.

- ① 神垣やおもひかけず涅槃像 芭蕉 (『あら野』)
- ② 負てくる母おろしけりねはんぞう 鼠彈 (『あら野』)
- ③ みのむしや常のなりにて涅槃像 野水 (『猿蓑』)

네한에는 석가가 입멸하는 음력 2월15일, 석가의 덕을 기리는 추모법회이지만, ①②③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법회 때에 본당의 정면에 장식하는 네한조(涅槃像, 열반에 든 부처를 그린 것)에 관해서 읊고 있다. 또한 『에도의 세사풍속지』(江戸の歳事風俗誌)에 의하면, 당시 네한에의 행사는 각 사원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져, 선남선녀들의 방문자가 끊이지 않았다<sup>12)</sup>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작품은 당시 사원에서 행해졌던 행사를 소재로 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부쓰에(灌仏會)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4월 8일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간부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606년 원흥사(元興寺)에서 최초로 행해졌다.

- ① 灌仏の日に生れ逢ふ鹿の子哉 芭蕉 (『あら野』)
- ② 灌仏や釋迦と提婆は從弟どし 之道 (『續猿蓑』)
- ③ 灌仏の其頃清ししらがさね 尙白 (『あら野』)
- ④ 灌仏やつゝじならぶる井戸のやね 曲翠 (『續猿蓑』)

이들 작품에서는 종교적인 행사와 함께, ④의 작품처럼 여름의 도래를 읊고 있는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江戸の歳次風俗誌』에도 간부쓰에에 관해서 자세히 적고 있는데<sup>13)</sup>, 당시 잇코슈(一向宗)를 제외한 각 사원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과 문헌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부쓰에는 널리 민간에서 행해진 연중행사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라본에(盂蘭盆會)에 관해서 살펴보자.

12) 「제물, 꽃등을 준비, 사원 안 밖을 청소하고, 사원 안에 제물을 바치고 대접을 하는 것은 수일 전부터 준비하고, 15일 당일에는 아침부터 선남선녀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다.」(『江戸の歳次風俗誌』小野武雄, 講談社, 2002)

13) 「에도시대, 간부쓰에가 가장 성행했던 곳은, 芝場町の藥師, 芝増上寺, 回向院、、、、 등이 있다.」(上掲書)

- |                   |        |         |
|-------------------|--------|---------|
| ① 魂祭舟より酒を手向けり     | 龜洞     | (『あら野』) |
| ② とうきびにかけろう軒や玉まつり | 酒堂     | (『炭俵』)  |
| ③ 顔にこぼるゝ玉笹の露      | 里圃     |         |
| 此盆は實の母のあと問て       | 馬けん    |         |
| 有付て行出羽の庄内         | 沾圃     | (『續猿蓑』) |
| ④ おもしろと鯛引けり盆の月    | 含(口+占) | (『あら野』) |
| ⑤ 踊るべきほどには酔て盆の月   | 李由     | (『炭俵』)  |
| ⑥ 盆の月ねたかと門をたゝきけり  | 野坡     | (『炭俵』)  |

우리본에는 음력 7월 13일부터 15일을 중심으로 조상신을 사후 고통세계에서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물을 조상의 영혼과 신불 그리고 무연불(無緣仏)에게 바쳐 명복을 비는 행사이다. 위의 작품에서는 선조의 영혼을 기리는 마음과 우리본에를 맞이하여 모친에 대한 추모공양, 그리고 화려한 불교행사로써 읊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에서 행해진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에도의 세사풍속지』(江戸の歳事風俗誌)에 의하면, 「이 시기에 장군가에서는 궁중으로 등을 보냈다. 민간에서는 15일에 정령제(精靈祭)를 행하고, 교토의 동쪽 정토사(淨土寺) 등의 산정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 산을 태우는 행사를 했다」<sup>14)</sup>고 한다.

이외에도, 10월 13일 니치렌(日蓮)승의 기일에 향해지는 법요를 읊은 오메이코(御影講 おめいこう),

- ① 柚も柿もおがまれにけり御影講 沾圃 (『續猿蓑』)

12월 8일 석가성도(釋迦成道)의 날을 맞이하여, 선사(禪寺)에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연일 좌선 수행을 하는 로하치(臘八, ろうはち),

- ① 臘八腸をさぐりて見れば納豆汁 許六 (『續猿蓑』)

11월 23일 밤부터 24일에 걸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로 팔죽을 먹는 다이시코(大師講 だいしこう),

- ① 何のあれかのあれけふは大師講 如行 (『續猿蓑』)

홍법대사(弘法大師)의 기일인 3월 21일에 초상화를 걸고 공양하는 법회인 미에쿠(御影供, みえいこ),

- ① 帶賣の戻り連立花ぐもり 孤屋  
御影供ごろの人のそはつく 利牛  
ほかほかと二日灸のいぼひ出 野坡 (『炭俵』)

14) 注12, 前掲書

등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위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맺는 말

이상, 근세 하이카이 문학의 작법서인 세시기와 기요세 그리고 하이카이 작품을 통해서 근세시대의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근세시대에는 출판문화의 급속한 보급과 발달로 문학에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서민문학으로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간 하이카이는, 세시기와 기요세와 같은 작법서의 보급과 작품집의 출판으로 한층 유행하게 된다.

그 중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궁정의 연중행사와 중세에 생겨난 무가의 연중행사뿐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형화된 세시풍속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인사와 종교로서 분리되는 기고의 반수이상이 전통적인 행사와 서민의 연중행사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근세인의 생활양식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데 최적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 기록된 제 연중행사들이 실제 생활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당시의 하이카이 작품을 통해서는 각각의 기고의 의미와 연중행사가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실제로 세시기와 기요세 등에 수록된 대부분의 기고가, 하이카이 작품으로 한 구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빈번하게 읊어지는 기고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세시기에 실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해졌다고 보기도 힘들고, 작품으로써 읊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행해졌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상의 분석은, 근세에 출판된 무수한 하이카이 작품집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작품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參考文獻】

- 『図説俳句大歳時記』(新年-冬)(1974), 角川書店 pp.374~504
- 日本風俗史學會編(1980)『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p.488~490
- 鈴木榮三(1977)『日本年中行事辭典』, 角川書店, pp.58~59
- 民俗學會編(1989)『民俗學辭典』, 民俗苑 pp.45~52
- 大塚民俗學會編(1979)『日本民俗辭典』, 弘文堂 pp.546~547
- 新日本古典文學大系『芭蕉七部集』(1990), 岩波書店, pp.1~570
- 松江重頼(1972)岩波文庫『毛吹草』, 岩波書店, pp.55~77
- 河緒實英(1998)『有職故實』, 塙書房, pp.152~169
- 田中宣一(1992)『年中行事の研究』, 櫻楓社
- 民俗學研究所編(1953)『年中行事図説』, 岩崎書店 pp. 2~5
- 齋藤隆三(1936)『江戸のすがた』, 雄山閣, pp.1~15
- 遠藤元男他 1名(1961)『年中行事の歴史學』 弘文堂
- 市古夏生校訂(2001)『東都歳事記』(上一下), 筑摩書房

- 小野武雄(2002)『江戸の歳事風俗誌』, 講談社, pp.65 ~66
- 山中裕(2003)『平安朝の年中行事』, 塙書房, pp.14 ~91
- 井本農一(1998)『私の季語手帳』, 小學館
- 喜田川守貞(2003)『近世風俗誌』(1-5), 岩波書房
- 朝倉治彦校注(1994)『人倫訓蒙図彙』, 平凡社

## 要 旨

本研究は、近世時代に発生して500年が過ぎた現在までも日本の國民文學として廣く愛され、行われている俳句と、当時出版された歳時記と季寄を通して近世を生きた日本人の生活とその変化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近世時代には出版文化の補給と發達によって文學も目覺ましい変化を見せる。庶民文學として世に廣まった俳諧は、歳時記と季寄、そして俳諧作品集の出版と補給で一層流行していく。

それらの文獻に收められている年中行事には、古くから伝わってきた宮廷の年中行事と武家の年中行事だけでなく、庶民の日常生活と密接な關係を持つ歳時風俗が網羅されていた。特に、人事と宗教として分類される季語には半数以上が古來の行事と庶民の年中行事が織り混ぜ、近世人の生活様式とその変化を把握するにき資料である。しかし、当時實際それらの諸年中行事が行われていたかどうかに関しては斷定できず、さらなる追求が必要であろう。

また、当時の俳諧作品を通しては、それぞれの季語の意味とその変化を捉えることができた。實際、多くの季語は歳時記や季寄などには収録されているが、作品としては一句も見つからない場合が多かった。多く詠まれる季語は幾つかと限られていて、歳時記に載っているといってすべての行事が行われていたと言って、作品として詠まれていたと言って、實際行われていたとも言えない。

さて、本研究は近世の文獻だけではなく、以前のすべての歳時記資料を網羅した現代の歳時記を時候、天文、地理、人事、宗教、動物、植物別に詳細に分類し、季語と年中行事の關係を明らかにし、その分布を表として提示した。これらの分類は、これからの日本人の生活様式と歳時風俗を研究するに廣く活用できよう。

しかし、以上の分析は限られた作品集に基づいているだけに、これからはもっと多くの俳諧作品集を調査・分析して総合的な結論を導くべきであろう。これは今後の課題にしたい。

キーワード：歳時記・季寄・年中行事・歳時風俗・俳諧七部集・毛吹草

투 고 : 2004. 2. 28  
2차 심사 : 2004. 3. 13  
3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일어교육학과  
電 話 : 011-9081-5680  
E-mail : michaelhylee@hanmail.net